

강창일 한국특명전권대사각하님께

우리는 귀국에서 화제의 일본 제1당입니다.

요전날, 우리 당 주최로 개최된 「도쿄 트리카에나할레 2022」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관련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귀국 외교부에서 일본 제 1 당을 명지하여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비난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다루고 집요하게 보도를 계속해 온 아사히신문은 그 허구성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가 허구, 사실 무근인 인식이 국민 각층에 널리 침투해 오고 있는 가운데, 귀국 외교부에 의한 「유감의 뜻」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은 물론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단호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제 1 당은 이번 한국 외교부의 비난 성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경위로 이 성명이 나왔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 한국외교부 담당자와의 면담장을 마련하여 이번 건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최초로 귀국 외교부로부터 우리 당 및 당수가 명지되어 「유감의 뜻」이 발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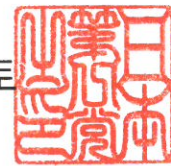
그 비난처로부터의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은 우리 국민은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름을 먹고 있는 각하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일가언이 있다고 추찰하겠습니다.

부디, 각하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쁨이 없는 의견을 나누게 되길 바란다.

상기에 관한 답변 기한은 6월 6일까지 부탁드립니다. 회답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당 공식 사이트 등에서 공개합니다.

령화 4년 5월 30일
일본 제1당 당 목 사쿠라이 마코토



일본 제1당
〒150-0011
도쿄도 시부야구 히가시2-4-1 스도 제2빌딩 3F
TEL:03-6450-5818
팩스:03-6450-5819